친구의 사례를 과제에 쓸 때 동의와 익명화를 구분하기

똑똑 · 에디터 가온 · 발행 2026.10.06

이름을 지워도 친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얻는 과정, 쓰는 목적, 공개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똑똑 자체 작성 해설. 글 속 숫자·인물·상황은 명시한 가상 학습 예시이며 실제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쉬운 설명

이름을 지워도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친구의 말을 어디에 쓸지 먼저 설명하고, 공개하지 않아도 과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핵심

- 이름 삭제와 익명화는 같지 않습니다.
- 동의 여부와 수집·공유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 식별 위험이 크면 가상·합성 사례로 바꿉니다.

핵심 구분 · 이름 없는 사례도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2학년 전학 첫날 급식실에서 겪은 일”은 이름이 없어도 학급 친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날짜, 학년, 보기 드문 사건이 함께 놓이면 식별 단서가 됩니다. UK ICO는 직접 이름이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 살피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름을 지운 뒤 스스로 익명이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익명화는 사람을 더는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문제이고, 동의는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알린 뒤 의사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둘은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발표 범위가 나중에 바뀌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자료를 꼭 써야 하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가상 사례 · 같은 문장, 다른 공개 범위

가상 사례: 현우는 친구가 겪은 단체 채팅 갈등을 윤리 과제에 쓰려 합니다. 친구는 현우가 개인 메모에 적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현우는 이름을 “학생 A”로 바꾸고 발표 화면에 사건 날짜와 채팅 문장을 그대로 올리려 합니다. 친구들이 이미 사건을 아는 상황이라면 이름 가리기는 식별을 막기 어렵습니다.

개인 메모, 교사에게 제출하는 과제, 교실 발표, 공개 웹 게시물은 보는 사람과 남는 시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야기해 줘도 될까?”라는 질문 하나로 모든 이용을 포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장면을 어떤 청중에게 언제까지 보여 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친구가 부담을 느낀다면 해당 사례를 빼고 가상 상황을 써도 논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남는 위험	가능한 수정
학생 A로 표기	날짜·문장이 식별 단서가 됨	구체 단서 삭제와 사용 범위 재검토
실제 대화 캡처	다른 사람의 글·연락 정보 포함	캡처 사용을 피함
가상 합성 사례	실제 친구 특정 가능성 낮음	가상임을 명시

모든 장면은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과제의 학교 지침을 따릅니다.

범위 · 동의는 목적과 범위를 함께 확인

누가 쓴 말인지뿐 아니라 누가 읽게 되는지,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지, 나중에 다시 게시할지 묻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진에 관해 ICO는 촬영·사용·온라인 게시 상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자료는 영국의 안내이며 한국 학교의 법적 허용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져올 것은 이용 장면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친구가 이미 말한 이야기도 과제에 옮기면 새로운 맥락에서 남습니다. 사적인 대화 속 허락을 공개 발표에 대한 허락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선택을 거절하거나 답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적지 않는 대안을 준비합니다. 실제 자료 사용이 필요한 과제라면 담당 교사와 학교의 개인정보·과제 지침을 확인합니다.

대안 · 사례를 줄여도 논점은 살아 있습니다

실제 인물의 세부 경험 대신 “가상 단체 채팅에서 한 사람의 말을 허락 없이 공유했다”는 합성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학급·직접 인용을 빼고 갈등의 선택지만 남기면 윤리적 질문을 토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성했다고 적어 실제 증언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합니다. 과제 목표가 관찰 자료 분석이라면 공개된 사례나 허가된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례는 친구가 흔쾌히 “써도 돼”라고 말한 경우입니다. 그 말이 구체적 발표 내용과 범위를 이해한 상태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메시지나 사진까지 친구 한 명이 대신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 확인은 관계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선택을 존중하는 대화여야 합니다.

제출 전 · 네 질문으로 마지막 점검

첫째, 이 자료가 정말 필요한가요? 둘째, 읽는 사람이 누구를 떠올릴 수 있나요? 셋째, 자료를 준 사람이 실제 쓰임을 알고 있나요? 넷째, 공개 범위가 바뀌면 다시 묻거나 삭제할 방법이 있나요? 하나라도 답이 불분명하면 식별 단서를 줄이거나 가상 사례로 바꿉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관련 의무는 상황과 처리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과제 설계 질문을 제공합니다. “익명이라면 허락 없이 공개해도 된다”거나 “동의를 받으면 무엇이든 게시할 수 있다”는 법적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교사와 학교의 지침을 확인한 뒤 친구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과제 초안을 친구에게 보여 주는 과정도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식별 위험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답을 강요하거나 다른 친구의 말을 대신 확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출한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무엇을 수정할 수 있는지도 교사와 알아봅니다. 절차를 미리 생각하면 친구의 경험을 과제 재료로만 취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생각해 보기

가상 현우의 발표 계획에서 식별 단서 두 개와 자료를 쓰지 않는 대안 한 개를 적으세요.

확인 설명

사건 날짜와 채팅 원문이 단서입니다. 실제 대화 대신 합성한 가상 갈등 상황을 쓰고 가상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바꾸면 익명인가요?

아닙니다. 드문 사건이나 날짜가 남아 있으면 이름 없이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한 번 허락했으면 온라인에도 올려도 되나요?

처음 설명한 목적과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가 달라지면 다시 상의하고 학교 지침을 확인하세요.

원문과 출처

- UK ICO · Can we identify an individual indirectly? —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uk-gdpr-guidance-and-resources/personal-information-what-is-it/what-is-personal-data/can-we-identify-an-individual-indirectly/: How do we identify someone indirectly?: 이름을 지워도 다른 정보의 결합으로 식별될 수 있음을 설명함.
- UK ICO · Taking photographs: data protection advice for schools —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advice-for-small-organisations/news-blogs-and-events/blogs/taking-photographs-data-protection-advice-for-schools/: 학교 사진의 사용·게시 상황: 촬영과 공개 목적 및 선택권을 따로 검토함. 영국 지침으로 한국 법 판정에는 사용하지 않음.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classroom-case-consent